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와 페론주의 정당¹⁾

마리아 에스페란사 카수요

정치학자. 리오네그로 국립대학교(아르헨티나 소재) 교수

원제와 출처: María Esperanza Casullo, “Argentina: del bipartidismo a la «democracia peronista»”,
Nueva Sociedad, No. 257, julio-agosto de 2015, pp. 16-28.

핵심어: 사회정의당, 페론당, 급진시민연합, 민주주의, 페론주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
마크리, 아르헨티나,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에 민주주의가 수립된 지 햇수로 벌써 30년이 넘는다(시민권자의 나이로 환산하면, 투표권이 있을 뿐 아니라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는 시간이다). 과도기를 겪으며 정치적 의식을 형성한 아르헨티나인에게 30년이라는 시간은 실로 감격스러울 따름이다. 이정표에 도달하기가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983년²⁾의 미숙한 민주주의는 ‘알폰신의 봄’이라고 부르던 시기에 많

1) 이 글은 2015년 2월 22일 브라운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센터에서 개최된 ‘아르헨티나의 오늘과 내일: 전망과 도전’ 학회에서 비롯되었다. 호세 이치그손, 리차드 스나이더, 안드레스 말라무드, 에르네스토 칼보의 도움과 견해에 감사드린다.

2) 1976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1983년까지 집권했다. 그리고 1983년 실시한 대통령선

은 사람이 생각하던 것보다 더욱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군부의 반란, 수차례의 심각한 경제위기, 2주 만에 5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2002년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위기라는 세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는 지속되어왔다. 30년 전 아르헨티나인은 권력의 위협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성취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최소한의 요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단순한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양질의 민주주의를 기대하고 있다.³⁾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만도 대단한 일이라는 하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이상의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민주주의의 성격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없다. 아르헨티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⁴⁾, 포퓰리즘적 민주주의⁵⁾, 대통령의 권력과 책임이 과도한 민주주의⁶⁾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글의 관점은 더욱 단순하다. 아르헨티나 민주주의의 총체를 표준화된 하나의 형용사로 정의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더욱 신중하고 귀납적인 관점을 사용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선거가 이러저러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공정하고 자유로우며, 투표율이 70%를 상회하여 국민의 뜻을 대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리고 공개된 총선거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엄격하게 경험론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는 어떤 유형인가?’라는 질

거에서 급진시민연합의 라울 알폰신(Raúl Alfonsín)이 당선됨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 옮김이.

3) Guillermo O'Donnell, Osvaldo Iazzetta y Hugo Quiroga, *Democracia delegativa*, Prometeo, Buenos Aires, 2011.

4) *Ibid.*

5) Ernesto Laclau, *La razón populist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Buenos Aires, 2005.

6) Alberto Castells, “La institución presidencial en el sistema político argentino”, *Revista Electrónica del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Ambrosio L. Gioja*, Año. VI, No. 9, 2012.

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전체 유권자의 수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페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이다.

I. 정당의 위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르헨티나 민주주의가 페론주의일 리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간 민주주의는 공고해진 듯하지만, 정당은 약화되어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위기라는 주제는 2001년 총선 분석과 2003년 대선 분석에서 총아(vedette)로 떠올랐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는 소위 ‘대표성의 위기’⁸⁾가 정당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가보다 비(非)페론주의 정당에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 정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페론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득표 면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선전하고 있다. 자료를 살펴보자. 1983년 아르헨티나는 급진시민연합(UCR: Unión Cívica Radical)과 사회정의당(PJ: Partido Justicialista, 일명 페론당)⁹⁾이 우위를 점하는 거의 완벽한 양당제 민주주의로 복귀했다.

1983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정의당과 급진시민연합 그리고 제3

7) Juan Carlos Torre, “Los huérfanos de la política de partidos. Sobre los alcances y la naturaleza de la crisis de representación partidaria”, *Desarrollo Económico*, Vol. 42, No. 42, 2003; Ernesto Calvo y Marcelo Escolar, *La nueva política de partidos en Argentina. Crisis política, realineamientos partidarios y reforma electoral*, Prometeo, Buenos Aires, 2005.

8) Marcelo Cavarozzi y M. E. Casullo, “Los partidos políticos en América Latina hoy: ¿consolidación o crisis?”, en Marcelo Cavarozzi y Juan Manuel Abal Medina, *El asedio a la política: los partidos latinoamericanos en la era neoliberal*, Homo Sapiens, Rosario, 2002.

9) justicial(justicialismo, justicialista)라는 단어는 사회정의(justicia social)의 축약어이므로, 사회정의당이라고 옮긴다 - 옮긴이.

〈표1〉 1983년 선거 결과

	급진시민연합	사회정의당	기타
대통령선거(득표율)	51.75%	40.16%	7.92%
하원의원선거(의석수)	129	111	14

출처: 앤디 토우의 블로그 중 '선거지도'에서(www.andytow.com)

세력인 비타협당(PI: Partido Intransigente, 일명 좌파민족주의당)이 경합을 벌였다. 이 선거의 승자는 -어떤 이들에게는 예상 밖의 결과였지만- 50%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급진시민연합의 라울 알폰신이었다. 페론주의, 즉 사회정의당은 패배하기는 했지만 40.61%라는 탄탄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 밖의 정당연합은 9%를 밑도는 지지율을 획득했다. 이 선거의 결과로 하원은 확실한 제1당과 제2당 그리고 나머지 소수당 의원으로 구성되었다.¹⁰⁾

아르헨티나는 양당제 전통이 강해서 1989년 초(超)인플레이션이 야기한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경제위기 앞에서 무능한 대처로 국민의 원성을 산 알폰신 대통령은 조기 퇴진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도 차기 대선에서 급진시민연합은 상당한 득표율을 유지했다. 급진시민연합의 에두아르도 앙헬로스는 37%를 득표한 데 비해, 사회정의당의 카를로스 메넬은 47%를 득표하여 대선에서 승리했다. 급진시민연합의 참패라고 볼 수는 없었고, 전문가들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오래된 당(급진시민연합)이 되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그렇지만 선거 자료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정당체제는 1990년대에 지속적으로 변했다는

10) 당시에는 상원의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주 의회가 선출하였다.

사실을 알 수 있다.

양당제의 균열은 1995년에 일어났다. 그해 치러진 대선에서 급진시민연합의 득표율은 초(超)인플레이션으로 위태롭던 1989년보다 더 낮았다. 메넬이 제안한 1994년 헌법개정안에 연대 서명을 하겠다는 알폰신의 결정(일명 ‘올리보스 협약’) 때문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급진시민연합 지지율은 추락을 면치 못했다. 신흥 중도좌파연합인 국가연대전선(Frepaso)이 거의 30%의 득표율을 보이며 2위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국가연대전선의 선전은 급진시민연합 지지자의 이탈, 비타협당에 대한 일시적 지지 그리고 환멸을 느낀 페론주의자의 이탈¹¹⁾로 설명할 수 있다. 1995년 선거 이후 급진시민연합은 타 정당과 연합하지 않고는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 양대 정당 간의 그리 길지 않은 싸움은 이렇게 시작됐다. 1999년 급진시민연합의 대선주자 페르난도 델 라 루아(Fernando de la Rúa)가 사회정의당의 에두아르도 두알데(Eduardo Duhalde)에게 승리하면서 양당 간의 경쟁은 급진시민연합의 승리로 결론 나는 듯했다. 그러나 급진시민연합은 결코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우선 선거에서 승리한 주체는 급진시민연합이 아니라 급진시민연합과 국가연대전선이 연합한 이른바 ‘노동, 정의, 교육을 위한 동맹’(Alianza por el Trabajo, la Justicia y la Educación)이었다. 그러나 이 동맹은 매우 약한 동맹이었다. 정권을 잡은 뒤에 양당은 복잡한 방식으로 공직을 배분했지만,¹²⁾ 이렇게 구성된 관료조직은 결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동맹의 취약성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델 라 루아 대통령과 카를로스 알바레스 부통령 간의 갈등

11) 국가연대전선의 주요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카를로스 알바레스는 사회정의당이 90년대에 신자유주의로 선회하자 그에 반대하며 탈당했다.

12) 급진시민연합의 장관직을 차지하면, 국가연대전선은 차관직을 차지하는 식으로 양당은 공평하게 관직을 배분했다.

이었고, 이 갈등은 동맹의(그리고 얼마 후에는 정권의) 종말을 재촉했다.

델 라 루아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 위기는 아르헨티나 정당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당시의 지배적인 여론은 “모두 물러나라”라는 문구로 요약할 수 있다. 15일 만에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교체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2003년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일곱 명이나 되는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다. 후보자 중 세 명이 페론당 출신이었고,¹³⁾ 세 명은 급진시민연합 출신이었다.¹⁴⁾ 최다득표자는 24%의 표를 얻은 카를로스 메넴(Carlos Menem) 전 대통령이였다. 그렇지만 메넴은 결선투표를 포기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큰 격차로 패배할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이다. 급진시민연합은 단지 2.35%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1983년 이래 가장 적은 득표였다. 이에 비해 페론당 출신 후보 세 명의 득표율은 거의 60%에 달했다. 최종 승자는 페론주의자이자 산타크루스 주지사인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éstor Kirchner)였는데, 공식적인 사회정의당을 버리고 ‘승리를 위한 전선’(FPV: Frente para la Victoria)¹⁵⁾이라는 요란한 이름으로 승리하였다. 2003년 대선에서는 모든 정당이 와해된 모습을 보이며 ‘대표제의 위기’가 거론되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정당체제가 양당구조를 회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페론주의 진영은 신속하게 다시 결집했다. 이는 비(非)페론주의 진영은 이뤄내지 못한 것이었다.

2005년 총선¹⁶⁾에서 키르츠네르 파는 두알데 파의 전통적인 텃밭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에서 승리했다. 이후 키르츠네르 파가 페론주의 진영에서 주도권을

13) 페론당 출신의 후보는 카를로스 메넴, 아돌포 로드리게스 사야,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였다.

14) 급진시민연합 출신의 후보는 레오폴도 모레아우, 당시에는 중도좌파이던 엘리사 카리오, 중도우파 리카르도 로페스 무르피였다.

15) ‘승리를 위한 전선’은 사회정의당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선거연합이다 - 옮긴이.

16) 아르헨티나에서 상원의원(임기 6년) 및 하원의원(임기 4년) 선거는 2년마다 실시된다. 매 선거에서 하원의원은 1/2이 교체되며, 상원의원은 1/3이 교체된다 - 옮긴이.

장악하였다. 이는 페론주의 진영에서 키르츠네르와 그의 정치적 대부 에두아르도 두알데의 대립을 의미했다. 두알데는 2002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줄곧 키르츠네르를 대권 주자로 지지한 터였다. 이로써 페론주의의 지배권을 차지하려는 싸움에서 키르츠네르 파가 승리했다.

2007년 대선에서 사회정의당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Cristina Elisabet Fernández de Kirchner)를 단일후보로 내세웠고,¹⁷⁾ 1차 투표에서 45%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¹⁸⁾ 그러나 비(非)페론주의는 로베르토 라바그나(급진시민연합 후보, 16.91% 득표)와 엘리사 카리오 후보(옛 급진시민연합당원, 23% 득표)로 분열되었다. 엘리사 카리오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다. 2009년 총선에서도 ‘승리를 위한 전선’은 지역구마다 단일 후보를 냈고(비록 어떤 선거구에서는 ‘득표 후보’¹⁹⁾를 냈지만), 야당은 다시 분열하여 여러 명의 후보를 냈다. 2011년 페론당 지지자들은 전적으로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를 지지했고, 그 덕분에 54%라는 기록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키르츠네르주의에 반대하는 페론주의자 두 명이 경합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알베르토 로드리게스 사야는 7.9%의 표를 얻었고, 에두아르도 두알데는 5%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급진시민연합은 12%, 중도좌파연합인 진

17) 키르츠네르 부부가 교대로 집권함으로써 한 번의 연임만을 허용하는 헌법상의 제약을 교묘히 피했을지 모르지만 키르츠네르주의는 2010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가 갑작스럽게 서거함으로써 좌절되었다.

18) 아르헨티나 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자가 45% 이상의 표를 획득하거나, 4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2위와의 표차가 10% 이상이 되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 옮김이.

19) 득표 후보는, 아르헨티나가 위기를 겪은 이후 도입한 독특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선거에서 하위 직위에 출마한 후보자의 득표는 정당에 상관없이 상위 직위에 출마한 후보자의 득표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A정당과 B정당이 어느 고장의 하원의원으로 각기 후보자를 공천한다. 그런데 A정당과 B정당이 동일한 대통령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했다면, 각 정당의 하원의원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얻은 표는 동일한 대통령 후보자의 득표가 된다. 따라서 이런 후보자가 하는 일은 대통령 후보자를 위해 표를 모으는 것이다.

보확대전선(FAP: Frente Amplio Progresista, 사회당이 주도권을 장악)은 16.81%의 표를 얻었다. 엘리사 카리오의 득표율은 1.84%로 폭락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정치체제의 위기에 대한 논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체제 위기’를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체제의 절반을 구성하는 비(非)페론주의자의 위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것은 전체가 아니라, 비(非)페론주의와 견해를 같이하는 정치적 정체성이다.²⁰⁾ 정당의 제도화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또는 바로 그 이유로) 페론주의는 대표성과 정치권력을 창출하기 위해 정당이라는 장치에만 의존하지 않은 채 안정적인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II. 그렇다면 페론주의란 무엇인가?

엄밀히 말해서 페론주의가 정당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독자는 궁금하게 여길 것이다. 페론주의는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페론주의는 놀라운 정치적 영속성과 생산성을 지닌 잘 정비된 탈조직이거나²¹⁾ 포퓰리즘 기계 정당(partido-máquina populista)이다.²²⁾ 패권을 쥐고 있는 정치적 정체성이기

20) 필자는 정당이라는 형식적인 조직보다 더 광범위한 것을 가리키고자 ‘정치적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필자는 헤라르도 아보이 카를레스의 견해를 받아들여 정치적 정체성을, 외적인 차별과 내적인 동질화 과정을 통해 집단행동이 가능한 안정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실천의 총체로 정의한다. 정치적 정체성은 정당의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페론주의가 엄밀한 의미에서 정당이 아니라 정치적 운동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이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Gerardo Aboy Carlés, “Populismo y democracia en la Argentina contemporánea. Entre el hegemonismo y la refundación”, *Estudios Sociales*, Vol. 28, No. 1, 2005.

21) Steven Levitsky, “Una ‘des-organización organizada’: organización informal y persistencia de estructuras partidarias locales en el peronismo argentino”,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o. 12, 10/2001.

22) Steven Levitsky y Kenneth M. Roberts, *The Resurgence of the Latin American Left*,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2011.

도 하고,²³⁾ 정치문화이기도 하다.²⁴⁾ 또 그 밖의 다른 많은 것이기도 하다. 이 글의 범위를 고려하여 필자는 페론주의의 4가지 특징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겠다.

첫째, 마리아 빅토리아 무리요가 주장하는 것처럼 “페론주의는 승리다.”²⁵⁾ 필자는 비꼬려거나 페론주의 철폐를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페론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없다거나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려는 방법이라거나 파벌주의와 조작을 통해 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페론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있으며,²⁶⁾ 오랜 기간의 추방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고,²⁷⁾ 집권하지 않을 때나 후견주의적 분배를 위한 재원이 없을 때도 정치적 정체성으로서 명맥을 이어왔다.²⁸⁾ 내가 “페론주의는 승리다.”라고 말할 때는,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 선거의 극도로 경쟁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유일한 정치적 정체성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선거 승리가 최우선이고, 그 밖의 이데올로기, 일관성, 지도자의 경력은 부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페론주의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발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치 않다.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페론주의자라는 자격과 다른 페론주의자들

23) Gerardo Aboy Carlés, “De lo popular a lo populista o el incierto devenir de la plebs”, en Gerardo Aboy Carlés, Sebastián Barros y Julián Melo, *Las brechas del pueblo. Reflexiones sobre identidades populares y populismo*, Universidad Nacional de General Sarmiento, Los Polvorines, 2013.

24) Pierre Ostiguy, “Peronism and Anti-Peronism: Social-Cultural Bases of Political Identity in Argentina”, trabajo presentado en el XX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Asociación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Guadalajara, 17 a 19 de abril de 1997.

25) “Victoria Murillo: ‘El gobierno le presta atención a la opinión pública’”, *El estadista*, 12/4/2012.

26) Susan Stokes, “Perverse Accountability: A Formal Model of Machine Politics with Evidence from Argentin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9, No. 3, 8/2005.

27) Daniel James, *Resistencia e integración. El peronismo y la clase trabajadora*, Siglo XXI, Buenos Aires, 2010.

28) Steven Levitsky, *op. cit.*

과 경쟁할 자격을 획득할 뿐이다. 반대로, 표를 얻지 못한 사람은 당 중진이건 전직 대통령이건 간에 신흥 경쟁자에게 위협 당한다(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안토니오 카피에로, 카를로스 메넬, 에두아르도 두알데가 있다). 득표에 의한 경쟁이야말로 대선후보로 공인받을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길이다. 페론이 말했듯이, “페론주의자에게 배신보다 더 나쁜 것은 초원이다.”(다시 말해서, 권력 상실이다) 아르헨티나 일간지에서 페론주의의 승리 지향성에 대한 비판 기사를 읽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바로 이 승리 지향성이 페론주의라는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정치적 정체성으로 만든다. 그 정치적 정체성에는 표만이, 쉽게 말해서 ‘얼마나 많이 득표하느냐’만이 존재한다. 이것은 다른 정당과 비교할 때 굉장한 장점이다. 다른 정당은 지도자가 명망 있는 인물일 경우, 선거결과가 나쁘더라도 교체하는 데 골머리를 앓거나, 지도자가 야망을 버리지 못하거나 타 후보가 더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과 동맹을 맺지 못하는 일이 많다.

둘째, 페론주의는 대중적이다. 피에르 오스티구이에 의하면, 페론주의는 정치에서 “수준 낮고 서민적이고 부적당한 것을 일부러 드러내는” 아르헨티나의 유일한 정치 이데올로기다.²⁹⁾ 나머지 모든 정당의 후보가 스스로 자신을 교육받은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중산층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우쭐대는 나라에서, 페론주의 대선후보는 서민과 문화적·정서적 유대를 강조한다. 그래서 늘 드러내놓고 초리빵³⁰⁾을 먹거나 당대의 가장 저급한 유명인사와 사진을 찍고, 축구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춤을 춘다. 서민은 정치적으로 동원되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제외하고는 대중매체가 규정하는 중산층의 영역에서 문화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는 중요하다.

29) Pierre Ostiguy, *op. cit.*

30) 빵 사이에 돼지고기 소시지를 넣은 것. 만들기 쉽고, 빨리 먹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격식을 따지지 않는 서민적인 음식으로 통한다 - 육긴이.

셋째, 스티븐 레비츠키가 잘 기술한 것처럼 페론주의는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에르네스토 칼보가 말처럼 페론주의는 사회에 ‘가까이’ 있다.³¹⁾ 급진시민 연합은 대학교에서는 존재감이 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그렇지 못하며, 좌파는 노동조합에서는 존재감이 어느 정도 있지만 지역조직에서는 거의 없다. 반면, 페론주의는 사회생활의 모든 장(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유일한 정치운동이다. 페론주의는 지역마다 조직이 있으며, 국회에는 입법자가 있고, 대학생단체와 노동조합 그리고 청년단체도 있다. 이런 단체는 가변적이고 분권적이며 상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래도 존재한다. 또는 알프레도 푸시아렐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페론주의 정치에는 이데올로기적이 아닌 정치적인 활력이 있으며, 다양한 요구를 포착하는 안테나가 있는 것 같다.”³²⁾ 페론주의에 깔려 있는 이러한 특징은 공동체의 요구사항이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 페론주의는 끊임없이 대표성을 만들어낸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페론주의는 수직적이다(그리고 페론주의자는 그런 위계질서를 따르는 사람이다). 페론주의는 비체계적이지만 분권적이지는 않다. 페론주의는 문화적·조직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는 동시에 하나의 중심(이 중심의 최고 모토는 “이기는 자는 통치하고, 지는 자는 뒤를 따른다.”이다)이 이끌어가는 ‘정당 기계’이다. 페론주의의 중심인물은 “이기는 자가 통치하고, 지는 자는 뒤를 따른다.”라는 최대 슬로건을 표방한다. 이러한 수직성 때문에 1990년대에 국영석유회사(YPF)의 민영화를 지지한 바로 그 상원·하원의원들이 2012년에는 다시 이 기업의 국유화에 찬성하였다. 안드레스 말라무드의 말을 빌리면, “페론주의는

31) Ernesto Calvo, Timothy Hellwig y Keyoung Chang, “The Eye of the Beholder: Ideological Lensing, Information Effects, and the Vote”, trabajo presentado en el XXII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adrid, 2012.

32) Alfredo Pucciarelli, “Hicieron un pésimo diagnóstico”, entrevista en *Página/12*, 29/6/2014.

모호해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이런 수직성은 지도자가 선거에서 득표력이 있는 동안만 유지된다는 것이다. 어느 페론주의자의 문구를 인용하자면, “페론주의는 저승까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묘지 입구까지는 함께한다.”

야당의 분열에 더해 위의 네 가지 원칙(이런 원칙은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한 아비투스³³를 형성한다)이 유효한 덕에, 페론주의는 쇠퇴하기는 커녕 2003년 선거에서 지지율이 증가했다. 2011년 대선에서 ‘승리를 위한 전선’(FPV)이 획득한 표와 자신을 페론주의자로 소개한 다른 대권 주자(알베르토 로드리게스 사아, 에두아르도 두알데)가 얻은 표를 합하면, 거의 70%에 육박하는 유권자가 페론주의 후보자를 선택했다. 반면, 급진시민연합(12%), 사회주의자인 에르메스 비네르(17%), 엘리사 카리오(2%)의 득표수를 모두 합쳐도, 옛 양당 시절의 비(非)페론주의 진영을 재건하는 일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페론주의의 지지율 증가는 2013년 총선에서 한층 더 뚜렷해졌다. 승리를 위한 연합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신흥 세력으로 부상한 세르히오 마사 후보에게 패한 것이다. 세르히오 마사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권에서 내각 수장³³을 역임한 바 있다(즉, 한때 페론주의자였으나 탈당했다).³⁴ 놀라운 점은 페론주의자가 때에 따라 여당 혹은 야당 의원으로서 경쟁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페론주의의 당선 가능성이 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지는 것 같다는 점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아르헨티나의 최대 선거구이자 ‘모든 전투의 근원’)의 최근 선거 결과를 살펴보자. 유동적인 정치판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페론주의에 있다

33) 내각 수장(jefe del Gabinete de Ministros)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유사하게 행정부처 전반의 정책을 조율한다 - 옮긴이.

34) 세르히오 마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정의당에 적을 두었으나 2013년 탈당하여 신당을 만들었다 - 옮긴이.

〈표2〉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의회선거(2013년)

	득표 수	득표율(%)	페론주의
혁신전선	3,776,898	43.92	83.16%
승리를 위한 전선	2,767,694	32.18	
자유와 노동 연합	469,336	5.46	
신앙연합	137,216	1.60	
사회시민진보전선	1,015,430	11.80	
노동자좌파전선	433,269	5.04	

출처: 앤디 토우의 블로그 중 '선거지도'에서(www.andytow.com)

고 소개한 모든 후보의 득표를 합산해 보면 결과는 의아하게 보일 수 있다. 승리를 위한 전선, 혁신전선(Frente Renovador), 자유와 노동 연합(Unidos por la Libertad y el Trabajo), 신앙연합(Unión con Fe)이 83%라는 전대미문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이다(〈표2 참고〉). 페론주의 내부의 경쟁은 표심 이탈이나 환멸을 야기하기 보다는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페론주의가 선거에서 패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페론주의는 이미 선거에서 진 적이 있고, 앞으로도 패배할 때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 정치에서 중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나머지 정당은 이에 반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페론주의 정당은 페론주의 운동이 남긴 공백을 메우고 페론주의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전시킨다. 앞서 말했듯이, 페론주의가 이렇게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권력에 의한 정치공학 때문도, 후견주의 때문도, 특정 개인의 언행 때문도, 과도한 대통령중심제 때문도 아니다(물론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페론주의가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비(非)폐쇄적인 조직이라는 특성에 있다. 페론주의의 존재 이유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끊임

없이 정치적 대표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여기에는 다음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즉, 주지사와 시장의 지역구 조직, 노동조합운동, 사회운동과 사회단체 그리고 오랜 경력을 지닌 기술관료 그룹이다.³⁵⁾

이러한 요소는 각기 사회의 특정 부분과 여러 유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관계는 사회정의당이나 노동조합에서 제도화된 것도 있고, 지역구 지도자와 지역 유지의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제도화된 것도 있다. 관건은 폐쇄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구성원 간의 경쟁이 치열해 새로운 형태의 대표가 끊임없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인물, 즉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페론주의가 정당을 포함하지만 정당보다 넓은 개념이며, 대표를 만들어내는 체제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강점이 있다. 첫째, 페론주의는 다양하고도 변화무쌍한 유대를 맺는 대표를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지도자에게만 내부 갈등을 조정하고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확립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두 가지 단점도 발생한다. 첫째 단점은 분파주의에 빠지기 쉬운 페론주의 내부의 거친 삶이다(다행히 1983년부터 지금까지는 내부 갈등을 1970년대처럼 폭력으로 해결하려 들지는 않는다).³⁶⁾ 두 번째 단점은 사회적 요구와

35) 기술관료 그룹의 한 예는 리오 네그로 주의 현직 상원의원 겸 '승리를 위한 전선' 소속 상원의원 회장인 미겔 앙헬 피체토이다.

36) 970년대 페론주의자는 극우파에서 극좌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극우파와 극좌파의 대립은 1973년 6월 20일 후안 도밍고 페론이 18년간의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던 날 에세이사(Ezeiza) 공항에서 발생했다. 경호를 맡은 극우페론파는 극좌페론파의 공항 진입을 저지하려고 총기를 난사하여 13명이 죽고 365명이 부상당했다. 이러한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극좌페론파(Montoneros)는 게릴라 활동을 전개했으며, 페론 3차 정권에서 사회복지부 장관을 하던 호세 로페스 레가(José López Rega)는 '아르헨티나반공연맹'(Triple A: Alianza Anticomunista Argentina)이라는 무장단체를 조직하여 백색테러를 일삼았다 - 옮긴이.

시대적 분위기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인터뷰에서 푸시아렐리가 말하고 있듯이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페론주의의 능력은 페론주의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하다.” 페론주의는 사회가 ‘요구한다고’ 느끼는 바에 따라, 극단적인 국가주의도 되고,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도 된다.³⁷⁾

끝으로, 페론주의 대통령의 실질적 경쟁자는 페론주의 운동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새로 등장한 경쟁자는 대개 대통령의 측근으로, 새로운 ‘시대 분위기’를 대변하고자 결심한다. 메넴 대통령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처음에는 부통령이던 두알데였고, 그다음에도 역시 페론주의자인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주지사였다. 그리고 크리스티나 정권은³⁸⁾ 전직 부통령이자 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인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와 크리스티나 정권에서 내각 수장을 역임한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에 의해 이중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경쟁 중이다. 재차 말하지만 페론주의자의 실질적인 경쟁상대는 또 다른 페론주의자다. 외부에서 선출하느냐(마사처럼) 내부에서 선출하느냐의(시올리처럼) 문제일 뿐이다. 더구나 페론주의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이런 과도한 경쟁을 좋아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모든 여론조사는 시올리 같은 독특한 여당위원을 가장 적합한 대선후보로 지목하고 있다. 시올리는 현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수행해온 인물이기도 하면서 크리스티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순수 키르츠네르 파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끝내 내무교통장관 플로렌시오 란다소 대신 시올리를 지지했

37) 국가주의는 후안 도밍고 페론 정권의 특징이며, 신자유주의는 카를로스 메넴 정권(1989년-1999년)의 특징이다 - 옮긴이.

38) 이 글은 2015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직전에 쓴 것이다. 2015년 11월 22일 대선 2차 결선 투표에서 공화주의제안당의 마크리 후보가 승리를 위한 전선의 시올리 후보를 52% 대 48%로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2015년 12월 10일에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 옮긴이.

다. 이렇게 해서 대선 예비선거(PASO)³⁹⁾에 출마한 사회정의당 후보는 한 명뿐이었다.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시울리에 대한 불신을 고려하여 부통령 후보는 카를로스 사니니(Carlos Zannini)를 지명했다. 사니니는 1980년대부터 크리스티나를 보필한 최측근이다.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친정부 청년조직 라 캄포라(La Cámpora) 회원 여러 명을 의원 예비후보자 명단에 올렸다. 키르츠네르과는, 80년대 모터보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로 명성을 날리다가 90년대 카를로스 메넴 정권 때 정계에 입문한 후 무난한 처세로 승승장구해온 시울리의 ‘충성심’을 의심하고 있으며, 야권은 시울리가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뜻에 비굴하게 굴복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III. 새로운 변화: 대선예비선거와 마우리시오 마크리의 리더십

2015년 현재 페론주의의 ‘조직적이지 못한 조직’은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2015년 말까지 페론주의는 이른바 키르츠네르주의(Kirchnerismo)라고 부르는 가장 긴 정권을 마무리해야 한다.⁴⁰⁾ 헌법에 명시된 대로, 페론주의는 연임기간이 끝난 지도자를 위해 1999년처럼 대권후계자를 선택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

39) 2009년에 도입하여 2011년 선거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모든 상하원의원 및 대통령 예비후보자는 반드시 이 예비선거(PASO)를 치러야 하며, 18세에서 70세까지의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할 의무가 있다. 동일 정당에서 2명 이상의 예비후보자를 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최다득표자가 해당 정당의 공식 후보자가 된다. 예비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옮긴이.

40) 2003년 네스토르 키르츠네르가 집권하고, 2007년에는 네스토르의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가 집권하였으므로 2015년 현재까지 12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카를로스 메넴의 집권 기간(1989년~1999년)보다 긴 기간이다.

다. 앞서 언급했듯이, 페론주의는 수직적이어서 민영화 또는 국영화와 같은 문제는 수월하게 진행한 반면, 역사적으로 리더십의 과도기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폭력이 난무하던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1994년 이스라엘·아르헨티나 친선협회(AMIA) 테러 사건⁴¹⁾에 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경찰의 연루 의혹부터 1997년 사진기자 호세 루이스 카베사스 피살 사건⁴²⁾에 이르기까지 메넴과 두알데 간 대립의 여파만 봐도 충분하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크리스티나 대통령은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시대에 집권한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리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이는 페론주의에서 늘 있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권좌에서 물러난 후 언제까지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시울리에게 현 정부와 분명한 선을 그으라고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마사는 201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구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애초 예상과 달리, 마사는 사회정의당 주지사를 단 한 명도 영입하지 못했다).

41) 1994년 7월 18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생한 차량폭탄 사건이다. 85명의 사망자와 3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대통령은 카를로스 메넴이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는 두알데였다 - 옮긴이.

42) 1997년 1월 25일 아르헨티나 시사주간지 「뉴스」(Noticias)의 사진기자 호세 루이스 카베사스(José Luis Cabezas)가 피살된 사건. 카베사스는 동료와 함께 아르헨티나 정계와 범조계의 비호를 받는 유력 기업가 알프레도 야라반(Alfredo Yabrán)의 정경유착관계를 파헤치고, 1996년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뉴스」지 표지사진으로 실었다. 이때까지 야라반은 일반인에게 전혀 않은 인물이었으며, 어느 언론도 사진을 게재한 적이 없었다. 이 사건 때문에 일순간에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야라반이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베사스가 취재를 계속하자 살해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야라반은 기소되었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다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 두알데에게 칼끝을 겨누었다. 두알데는 “시체를 나에게 떠넘기려한다”면서 반발했고, 여론도 메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야라반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며 메넴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1998년 3월 20일 야라반이 자살하자 수사는 흐지부지되었다 - 옮긴이.

한편, 또 하나의 미지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라는 인물이다. 마크리는 2005년 공화주의제안당(PRO: Propuesta Republicana)을 창당한 이후 서서히 페론주의의 주요 도전자로 부상했다. 마크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신성한 인물이다. 우선 페론주의자가 아니며, 그렇다고 반(反)페론주의자로 행세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급진시민연합 출신이 아니지만 이 당의 지지표를 서서히 흡수하고 있다. 사실상 마크리는 급진시민연합 후보인 에르네스토 산스와 ‘바꾸자’(Cambiamos) 연합⁴³⁾의 카리오와 경쟁할 것이다.

마크리는 페론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 정체성은, 1945년 이후 만들어진 반(反)페론주의의 주된 논리, 즉 포퓰리즘에 대한 반감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마크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에 있을 때 옛 페론주의자들을 망설이지 않고 기용했고, 인기 축구클럽 보카 주니어스의 사장을 지냈으며,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대중잡지에 등장했다. 또 지방선거에서는 코미디언(미겔 델 셀), 축구선수(카를로스 막알리스테르), 모델(토미 둔스테르), 요리사(마르티니아 노몰리나)까지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다. 다시 말해서, 마크리는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려고 노력하였다(전통적으로 급진시민연합은 이런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한편, 마크리와 공화주의제안당(PRO)은 계속해서 급진시민연합 소속의 지방 시장, 시의원을 영입하고 있다. 네우켄, 티에라 델 푸에고, 추부트,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는 급진시민연합에서 공화주의제안당으로 옮겨간 청년지도자가 많다. 이들이 당적을 바꾼 이유는 당면한 선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주의제안당이 참신하고, 젊고, 친기업적이며,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포

43) 실제 선거 국면에 돌입했을 때는 공화주의제안당(마크리)과 급진시민연합(산스)이 ‘바꾸자’ 선거연합에 합류하였다 - 옮김이.

방하기 때문이다.⁴⁴⁾ 이러한 추세라면 아마도 공화주의제안당은 중도우파진영의 대표적인 야당인 급진시민연합을 대체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로써 아르헨티나 정당체제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비(非)페론주의는 재무장할 것이다.

결국, 유연하지만 수직적이고 비조직적이며 전투경험이 많은 백전노장 페론주의 조직과 새로운 도전자 마우리시오 마크리의 공화주의제안당이 선거에서 맞대결할 것이다. 공화주의제안당의 대선후보 마크리는 대중적 호감, 풍부한 자금, 주요 매스컴의 찬사와 더불어 아르헨티나 최고의 정치 전략가인 에콰도르 출신의 하이메 두란 바르바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페론주의 진영에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라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도 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지위가 높은 인물부터 가장 변변치 못한 사람까지 모두가 ‘페론주의는 승리다’라는 신조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페론주의가 패배할 것이라는 장담은 지나친 말이 될 것이다.⁴⁵⁾

조혜진 옮김

44) Gabriel Vommaro, Sergio Morresi y Alejandro Bellotti, *Mundo Pro. Anatomía de un partido fabricado para ganar*, Planeta, Buenos Aires, 2015.

45)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이 글은 선거 전에 집필한 것으로 대선 결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2015년 10월 25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바꾸자’ 선거연합 후보 마크리는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11월 22일 실시된 결선투표에서는 51.34%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12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로써 지난 15년간 집권한 페론주의는 권좌를 내놓게 되었다 - 옮긴이.

